

임원진 선임하고 사업목적 추가... 성장동력 마련 '구슬땀'

유통·식품업계 주총시즌 돌입

3월 정기주주총회(주총)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유통·식품업계 주총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추가와 임원진 선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 경영진 신규선임 등 경영환경 안정에 초점

우선 가장 먼저 주총을 시작하는 신세계는 박주형 신세계 부사장, 허병훈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 또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같은 날 BGF도 이사진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이번 BGF리테일 정기주총에서 홍석조 BGF그룹 회장 장남인 홍정국 BGF 대표이사 겸 BGF리테일 부회장이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될 전망이다.

이마트는 한재양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겸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 등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제54기 정기 주총에서 김사무엘상현·정준호·장호주 사내이사, 심수옥·조상철·한재연 사외이사 등의 선임 안건을 올린다.

이달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전무가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

신세계·BGF·이마트·롯데쇼핑 등 사내·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 상정

현대비, 정지선 회장 재선임 하기로 오리온, 레고캠 인수 후 투자 확대

롯데칠성·롯데웰푸드·오뚜기 등 경쟁력 강화 일환 사업목적 추가

새로 선임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 등 임원에 처음 올랐다.

현대백화점은 사내이사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재선임한다. 또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및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을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로는 윤석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신규 선임하고 권영옥 숙명여대 경영학부장, 박주영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현대백화점 서울 전경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은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윤영식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사외이사에 국세청 출신 김형환 대원세무법인 회장,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식품업계,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식품업계는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음료는 20일 주총을 열고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다룬다. 탄산음료나 맥주 등에 들어가는 탄산을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안정유사 등에서 식품용 액화탄산가스를 전량 구입해 왔지만, 앞으로 주정 발효 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포집하고 정제해 가공한 후 음료와 주류 생산에



오리온 사옥 /오리온

다시 사용할 계획이다. 자체 탄산가스 제조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ESG 경영 실천과도 맞물린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오리온은 21일 용산구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최근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레고캠)를 인수하며 바이오 사업 투자 확대를 공고히 한 오리온은 사외이사 구성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이육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롯데웰푸드는 같은날 열리는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성욱 롯데웰푸드 재무전략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사업목적에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업제공업'을 추가한다.

대상은 오는 22일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단순 온라인몰 운영을 넘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오픈마켓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뚜기는 26일 주총을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현재 자체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설비를 얹어 이익을 거두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올해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과 '특수의료용도 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추가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하림지주는 오는 28일 주총에서 사업 목적을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 제공사업' '농·수·축·임산물 위수탁 판매 및 중개업' '농·수·축·임산물 대리점업' '국내외 프랜차이즈사업 및 체인점업'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관련 서비스업' 등 총 6개로 향후 사업 범위 확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 변경에 나선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헬스&웰니스' 혁신 K-푸드, 세계에 알려

美 자연식품 박람회 NPEW 참가 발효기술&친환경 원재료 부스 운영 김치·고추장·냉동김밥 등 선보여

CJ제일제당이 세계 최대규모 자연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헬스&웰니스' 경쟁력을 갖춘 K-푸드 혁신 제품을 전 세계에 알렸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2024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웨스트(NPEW)'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42회째를 맞는 NPEW는 '헬스&웰니스' 트렌드를 이끄는 최신 식품, 건강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000여 업체와 약 6만명의 관람

객이 참여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람회에서 '발효 기술 & 친환경 원재료' 테마의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비비고 제품을 소개하며 체험,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CJ만의 차별화된 발효기술이 적용된 K-푸드의 원조 격인 김치와 K-소스(고추장, K-BBQ소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친환경·건강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해조류(김, 미역 등)를 활용한 김스낵, 냉동김밥, 씨위드 소스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해외 출시를 앞둔 새로운 형태의 씨위드 소스 3종(페스토, 볶음 요리용 소스, 핫소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제품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한 원료인 해조류를 자연 발효시켜 만

든 것으로, 비비고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적인 풍미를 담은 K-소스 브랜드 '서울폴리'도 새롭게 소개했다. '서울폴리'는 한국 전통 장 원료와 발효 공법을 사용해 한식 고유의 풍미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전문 소스 브랜드다. 감칠맛, 매운맛, 깊은 풍미 등 K-Flavor를 손쉽게 요리에 접목할 수 있어 한식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천연 재료를 활용해 만든 혁신제품으로 주목 받는 건강주스 전문 회사 툴루아와 함께 협업해 출시한 기능성 음료도 소개했다. 이

제품은 특히 받은 CJ김치유산균(CJLP55)과 한국산 고춧가루를 활용, CJ만의 독보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건강 음료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만들어 '올해의 혁신 제품' 최종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다.

CJ제일제당 부스에는 미국 주요 리테일 바이어, 전문 판매/유통업자, 일반 소비자 등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람회가 미국 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주요 유통채널에 CJ제일제당의 글로벌 혁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랩 1899' 레드 진생 콜라겐크림 등 화장품 신제품 3종 출시

정관장은 고기능 비건 뷰티 브랜드 '랩 1899'가 신제품 '레드 진생 펩타이드 세럼', '레드 진생 콜라겐 크림', '레드 진생 히알루론산 크림' 3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GC인삼공사의 노하우로 완성한 레드진생 비건 뷰티 테크놀로지 브랜드 랩 1899는 세계적인 비건 인증기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획득한 저자극 화장품 브랜드다. 지난 2월 미국서 '레드 진생 펩타이드 세럼'을 먼저 출시한 랩 1899는 목표 금액 대비 4배가 넘는 펀딩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랩 1899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5종을 특허 받은 추출법으로 진하게 담아낸 진세닌베리어를 통해 피부에 건강한 힘을 선사한다.

'레드 진생 펩타이드 세럼'은 홍삼 유래 식물성 단백질을 특허 받은 공법으로 추출한 펩타이드를 함유해 피부에 탄탄한 힘을 부여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레드 진생 콜라겐 크림'은 홍삼에서 유래한 식물성 비건 콜라겐이 함유되어 깊은 피부 탄력과 걸터턱 모두 치밀하게 차오르는 멀티 탄력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레드 진생 히알루론산 크림'은 홍삼과 히알루론산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보습 소재를 통해 피부 수분 방어벽을 촘촘하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랩 1899의 신제품 3종은 정관장 공식몰과 네이버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LA다저스와 '13년 인연'... 스폰서십 3년 연장

美 LA다저스 구장에 LED광고 설치 '코리아 나잇' 행사 등 후원활동 진행

하이트진로가 '진로(JINRO)'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LA다저스와 스폰서십 계약을 3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업계 최초

로 2012년부터 LA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LA다저스 파트너사로서 로고 사용권은 물론 구장 LED 광고 설치, 시음 행사 진행과 구단 공식 매거진 '인사이드'를 통한 제품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장 내에서 상시 노출이 가능한 광고판을 관중석에 추가로 설치해 진로

브랜드 노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저스 구장 대표 행사인 '코리아 나잇'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으로 현지 야구팬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구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진로 바'와 11개 매점에서는 과일 소주 4종과 테라 캔맥주, 그리고 '진로 소주 쏘 블루' 칵테일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가 신규 설치한 광고판. /하이트진로